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13. No.20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국의 FTA 10년

— 한국의 FTA 10년 평가 ③ —

2014년 3월

명진호 수석연구원

정혜선 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

이혜연 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차

I. 조사 개요	1
II. 조사 내용	3
1. FTA 10년 평가	3
2. FTA 활용	6
3. 향후 FTA 추진	11

☐ 보고서 내용 문의처

명진호 수석연구원(☎ 02-6000-5263, thetotoro@kita.net)

정혜선 연구원(☎ 02-6000-5344, hsjung1110@kita.net)

I. 조사 개요

□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 발표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FTA 성과를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자 무역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14.3.4~19일 동안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동 설문조사는 무역업체 및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가운데 랜덤으로 조사대상을 추출하여 총 1,000개 업체가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임

【설문 조사 개요】

- 조사대상: 무역업체 및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랜덤(random) 표본 추출
-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pm 3.1\%$
- 유효표본: 1,000개 업체
- 조사기간: 2014년 3월 4일 ~ 3월 19일
- 조사방법: 구조화 된 질문지를 이용한 웹 설문조사(e-mail, 전화, 팩스 조사 병행)
- 수행기관: 코리아리서치

- 응답업체 1,000개사 가운데 97.5%는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연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기업도 72.9%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다수인 우리나라 기업 분포에 부합
- 응답업체 1,000개사는 수출중심(28.8%), 수입중심(36.9%), 수출입 모두 활발(21.5%), 국내납품 중심(12.8%) 등 다양한 사업형태로 구성

<조사대상 업체 일반정보>

종업원 수	비율(%)	전년도 매출액	비율(%)	수출입유형	비율(%)
50명 미만	82.4	100억 미만	72.9	수출중심	28.8
50명 ~ 299명	15.1	100억 ~ 500억 미만	19.3	수입중심	36.9
300명 ~ 999명	1.8	500억 ~ 1,000억 미만	4.5	수출입 활발	21.5
1,000명 이상	0.7	1,000억 이상	3.1	국내납품 중심	12.8
소계	100	소계	100	소계	100

주: 매출액 구분에 답하지 않은 무응답 업체 2곳 포함

- 주요 설문내용은 지난 FTA 10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기업의 실제 FTA 활용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고 이와 함께 향후 FTA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방향 및 대상, 정책추진시 고려요인 등으로 구성

【주요 설문 내용】

① FTA 10년에 대한 평가

- 지난 10년간, FTA가 회사의 경영 및 수출입확대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 FTA가 경영,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된 이유
- 경영,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된 부분
- 경영,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
- 발효중인 FTA가운데, 국가경제 혹은 기업경영에 가장 중요한 FTA

② FTA 활용

- 실제 FTA 활용 여부
- 실제 수출입에서 활용하고 있는 FTA
- 수출시, FTA 특혜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인하분의 사용처
- 수입시, FTA 특혜관세에 따른 관세 인하분의 사용처
-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 기업 입장에서, FTA와 관련한 주된 애로사항

③ 향후 FTA 추진

- FTA 추진방향 및 대상
 - 협상 및 검토되는 FTA 중 조기타결이 가장 필요한 FTA
 - 1순위로 선택한 국가와 FTA가 필요한 이유
 - FTA 추진 및 검토대상에는 없지만, 추진해야 할 FTA 협상 대상
- FTA 정책추진시 고려요인
 - 향후 FTA 협상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
 - 우리업계의 FTA활용 확대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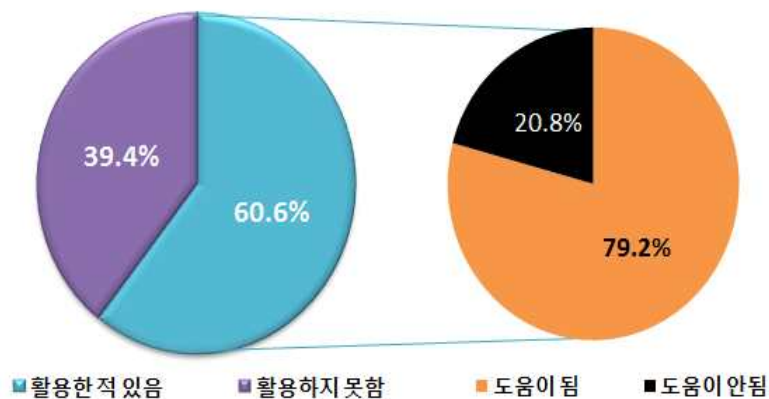
II. 조사 내용

1 FTA 10년 평가

□ 업체의 FTA 활용도와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응답기업의 60.6%가 FTA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활용경험이 있는 기업의 79.2%는 FTA가 기업 경영,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

〈FTA 활용도 및 만족도〉



주: 활용여부 N=1,000, 도움여부 N=606

- FTA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는 FTA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54.5%,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45.5%로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별로도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기업의 50.6%, 100억 원 이상 기업의 65.0%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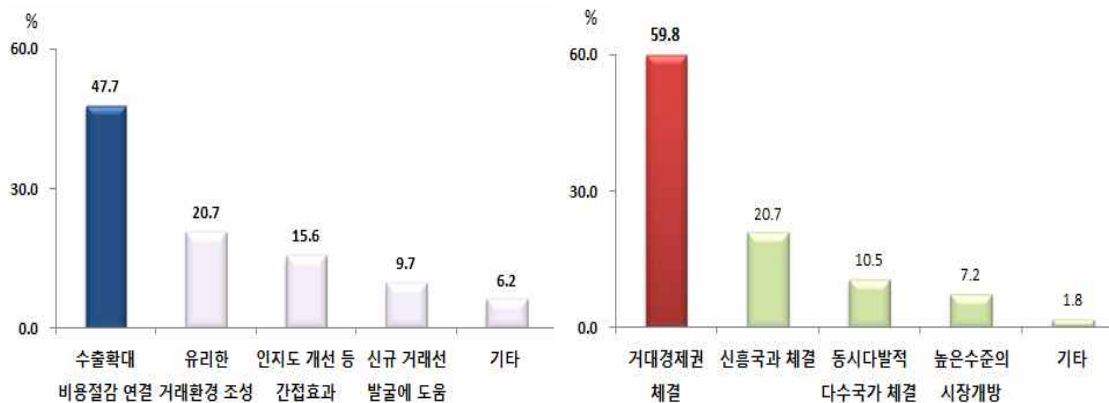
〈FTA 활용도 및 만족도〉

구분		기업수	도움이 됨(%)	도움이 안됨(%)
FTA 활용	전체	1,000	54.5	45.5
	활용한적 있음	606	79.2	20.8
	활용하지 못함	394	16.5	83.5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미만	729	50.6	49.4
	100억 원 이상	269	65.0	35.0
	무응답	2	50.0	50.0

□ 도움이 된 가장 큰 요인에 대해 무역업체는 FTA가 수출확대 및 비용절감으로 연결된 점을 꼽았고, 특히 추진 전략 가운데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높게 평가

- 무역업체는 FTA가 도움이 된 이유를 수출확대·비용절감·매출증대 연결(47.7%), 경쟁국 및 기업 대비 유리한 거래환경 조성(20.7%), 현지 시장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 개선 등 간접효과 발생(15.6%), 신규거래선 발굴에 도움(9.7%) 順으로 꼽음
- 또한 FTA 추진 전략과 관련해서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59.8%), ASEAN, 인도 등 신흥국과의 FTA 체결(20.7%),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국가와 FTA 추진(10.5%),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한 점(7.2%) 順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FTA의 기업 경영 및 수출입 확대 도움 요인〉



주: 도움 요인 N=545

□ 반면에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에 대해 무역업체는 관심국가와의 FTA 未체결, 경기침체·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상쇄, 거래의 복잡성 등을 꼽음

- FTA가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업계는 관심국가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점(27.7%), 경기침체·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FTA 효과 상쇄(25.7%) 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고 FTA가 거래 확대 보다는 기존 거래에 복잡성을 초래했다(25.1%)는 응답이 뒤를 이었음
- 비관세 장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6.8%)과 주력 품목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3.7%)도 일부 답변

〈FTA의 기업 경영 및 수출입 확대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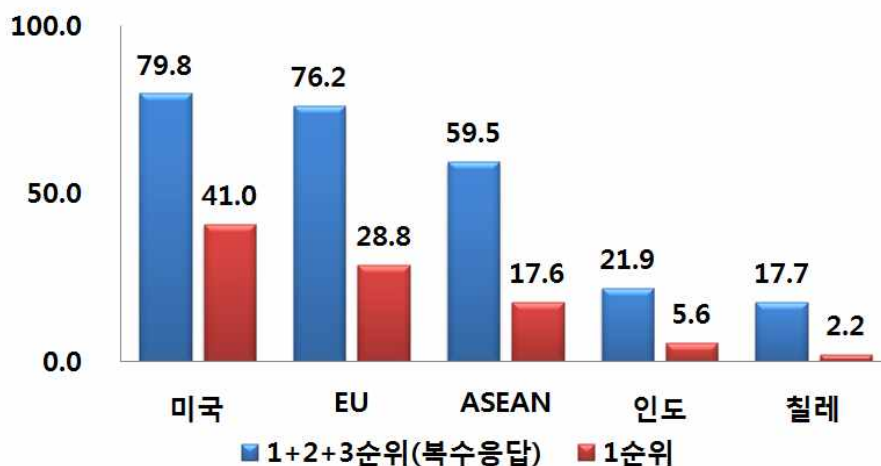
내용	비율(%)
관심국가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	27.7
경기침체, 환율변동 등 FTA 효과 상쇄	25.7
거래확대보다는 기존 거래에 복잡성을 초래	25.1
비관세 장벽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	6.8
주력품목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음	3.7
기타	11.0

주: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 N=455

□ 현재 발효중인 FTA 가운데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무역업계는 미국, EU, ASEAN과의 FTA 順으로 응답

- 1순위를 꼽는 질문과 복수응답을 통해 1+2+3 순위를 종합해 본 결과 양쪽 모두 순위 변동없이 미국, EU, ASEAN, 인도, 칠레와의 FTA 順으로 나타나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중요하게 평가됨

〈既발효 FTA 가운데 우리경제·기업경영의 중요도순〉



주: 既발효 FTA 중요도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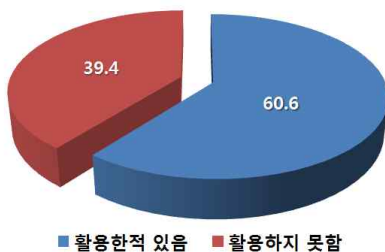
2 FTA 활용

□ 60.6%가 FTA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FTA별로는 EU, 미국, ASEAN, 인도, 칠레와의 FTA 順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

○ 활용하고 있는 FTA에 대해 한·EU FTA(60.4%), 한·미 FTA(51.5%), 한·ASEAN FTA(28.5%), 한·인도 CEPA(10.2%), 한·칠레 FTA(8.1%)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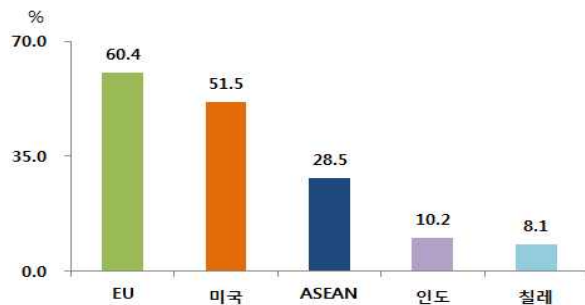
- 앞서 既발효 FTA의 중요도 인식은 미국, EU, ASEAN 순으로 나타났으나, 활용하고 있는 FTA에 대해서는 EU, 미국, ASEAN 순으로 나타나 순서가 뒤바뀜

〈FTA 활용 경험〉



주: FTA 활용 경험 N=1,000

〈활용하고 있는 FTA(복수응답)〉



주: FTA 활용중 N=606

○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의 71.7%가, 100억원 미만 기업의 56.5%가 FTA 활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변

- 실제 FTA 활용률 및 기업규모별 활용 실적도 유사한 실적이 나타남

〈FTA 활용 경험 설문조사〉

구분		활용한적 있음(%)
전년도 매출액	전체	60.6
	100억 원 미만	56.5
	100억 원 이상	71.7

주: FTA 활용 경험 N=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률(%)〉

		'12년(%)	'13년(%)	
수출	대기업	62.7	66.9	76.9
	중소기업		66.9	57.3
수입		67.0	69.0	

주: FTA 활용률은 '실제특혜관세혜택 수출·입/특혜관세자격 수출·입'으로, 수출 일부는 추정치
자료: 관세청('13.12월)

□ FTA 활용 기업의 관세인하분은 수출시 바이어 귀속, 수출 물량 확대, 마케팅 활용에 이용되고, 수입시에는 자사 비용절감, 시장가격에 반영, 납품가격 인하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시 FTA 관세인하분의 사용처에 대해 무역업체는 바이어 요청시에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바이어 귀속(20.3%), 수출 물량 확대에 활용(12.5%), 신규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에 적극 활용(11.2%), 해외 현지의 판매가격 인하(10.4%) 순으로 답변
- 그 외에 수입 통관까지 직접해 자사 내부 이익으로 활용(6.9%), 본지사간 거래가 많아 자사로 귀속(3.3%) 등이 있었고, 바이어에게 요구해 수출 납품가를 인상한 경우(1.8%)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수입시에는 자사 비용절감에 활용(28.9%)하거나 시장 가격에 반영해 고객 마케팅에 적극 활용(24.3%)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국내 납품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국내 납품처의 요구로 납품가 인하에 활용한다는 답변도 17.8%로 나타남
-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셀러의 요구를 수용해 국내 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기업은 9.1%, 수입가를 올려주는 기업은 1.3%로 나타났고, 본지사간 거래를 주로 하는 3.3%의 기업은 관세 혜택분이 자사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됨

〈FTA 관세인하분 활용〉

순위	수출관세	비율(%)	수입관세	비율(%)
1	바이어 요청시만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해, 관세혜택은 바이어에 귀속	20.3	자사비용 절감에 활용	28.9
2	수출물량 확대에 활용	12.5	시장가격에 반영해 고객 마케팅에 적극 활용	24.3
3	신규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활용	11.2	국내 납품 대상 기업의 요구로 납품가격인하에 활용	17.8
4	해외 현지 판매가격 인하	10.4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셀러의 요구로 국내 판매가 인하에 활용	9.1
5	수입통관까지 자사가 직접 담당해 자사 내부이익으로 활용	6.9	본지사간 거래가 많아 자사로 귀속	3.3
6	본지사간 거래가 많아 자사로 귀속	3.3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셀러의 요구로 수입가 인상에 활용	1.3
7	바이어에게 요구해 수출납품가 인상	1.8	-	-

주: FTA 관세인하분 활용 N=606

□ 활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관세인하 혜택이 적음(33.8%, 활용 절차를 모르거나 관리가 어려움(27.2%), 바이어 및 셀러의 협조 부족(20.1%)을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음

-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의 33.8%는 수출입 품목이 본래 관세가 없거나 관세 인하 폭이 적어서 FTA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27.2%는 FTA 未활용의 이유로 활용 절차를 모르거나 관리가 어려운 점을 꼽음
- 20.1%의 기업은 수출시 상대국 바이어가 FTA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지 않거나 수입의 경우 해외의 셀러가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등 상대국의 바이어 및 셀러의 협조 부족을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이라 응답
- 이어서 FTA 활용 전문 인력 부족(10.9%), FTA 활용을 위한 비용 대비 적은 실익(8.1%)을 주요 원인이라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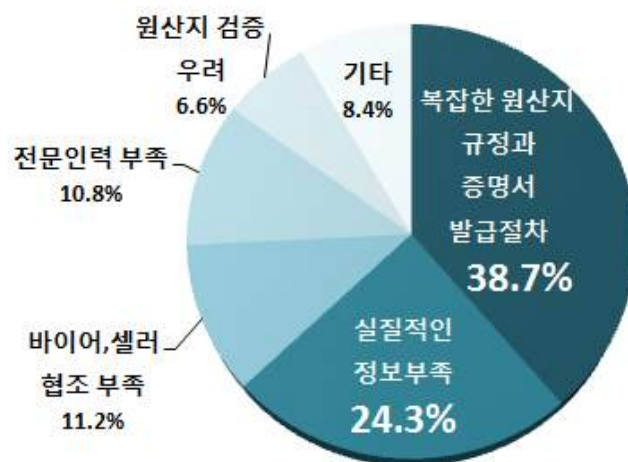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

내용	비율(%)
수출입 품목이 이미 무관세이거나 관세인하 폭이 적음	33.8
FTA 활용 절차를 모르고 관리하기가 어려워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27.2
수출시 상대국 바이어의 FTA 원산지 증명서 요청이 없거나, 수입시 해외 셀러가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 주지 않음	20.1
FTA 활용 전문 인력 부족	10.9
FTA 활용을 위한 비용(관리비, 원산지 검증 대응 등) 대비 관세 인하의 실익이 적음	8.1

주: FTA 활용 하지 못함 N=394

- 종합적으로 기업의 FTA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복잡한 절차(38.7%), 정보 부족 문제(24.3%)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고, 바이어 및 셀러의 협조 부족(11.2%)도 애로 사항으로 지적되었음
-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38.7%), FTA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부족(24.3%)으로 확인됨
- 또한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발급해줘야 할 바이어 및 셀러의 협조 부족(11.2%)도 애로사항으로 드러났고, 사내의 전문 인력 부족(10.8%), 원산지 검증 우려(6.6%)가 뒤를 이었음

〈FTA 관련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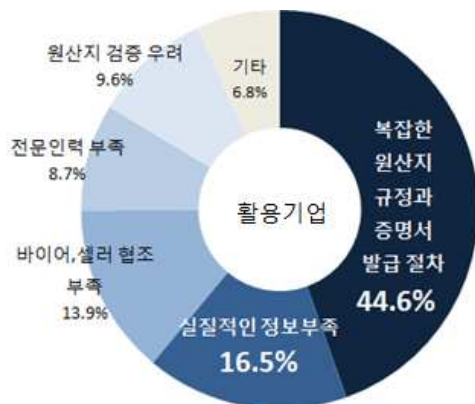


주: FTA 관련 애로사항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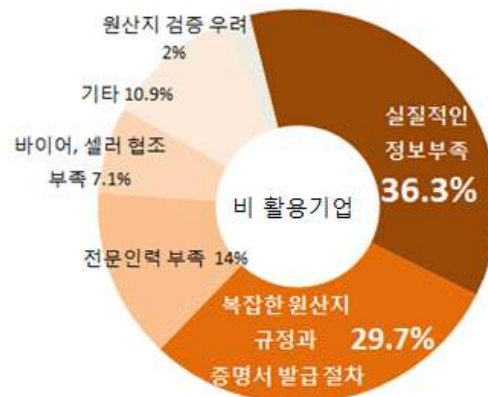
- 특히, 업계는 FTA 활용 경험에 따라 애로사항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활용기업은 복잡한 규정·절차와 바이어·셀러의 협조부족, 未활용기업은 실질적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의 비중이 애로로 높게 나타남

- FTA 활용 기업의 경우 복잡한 원산지 증명서 규정 및 발급 절차(44.6%)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이어서 정보부족(16.5%), 바이어 및 셀러의 협조 부족(13.9%)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음
- 반면에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실질적인 정보부족(36.6%)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이어 복잡한 규정 및 절차(29.7%), 사내 전문 인력의 부족(14.0%)을 꼽음

〈FTA 활용여부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주: FTA 활용함 N=606



주: FTA 활용 하지 못함 N=394

3 향후 FTA 추진

- 현재 우리나라가 협상을 진행하거나 검토중인 FTA 가운데 조기 타결을 희망하는 FTA를 조사한 결과,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동아시아 역내의 FTA 추진이 상위를 차지
 - 조기 타결 희망 1순위 및 1+2+3순위를 집계한 결과 양쪽 모두 순위 변동 없이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한·일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등의 순으로 꼽아 업계는 동아시아 역내의 FTA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냄
 - 특히, 1, 2, 3위를 차지한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모두 중국이 포함되어 있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
 - 이어서 중미 5개국, 사우디 아라비아 등이 포함된 GCC,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뒤를 이었음

〈조기 타결이 필요한 FTA 응답 결과〉

순위	국가	1순위(%)	1+2+3순위(%)
1	중국	44.8	64.1
2	한·중·일	17.4	51.8
3	RCEP	11.6	43.8
4	일본	7.6	24.6
5	베트남	5.0	19.8
6	인도네시아	2.9	16.5
7	중미5개국*	2.3	11.2
8	GCC	2.3	11.0
9	러시아	2.0	11.0
10	말레이시아	1.4	6.5

주: 조기 타결 FTA 순위 N=1,000

- 상기 FTA들의 조기 타결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무역업계는 현재 교역량이 많은 주요 거래 국가, 전도유망한 신흥시장으로서의 성장잠재력,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의 역내 교역 활성화, 자원 확보 등이라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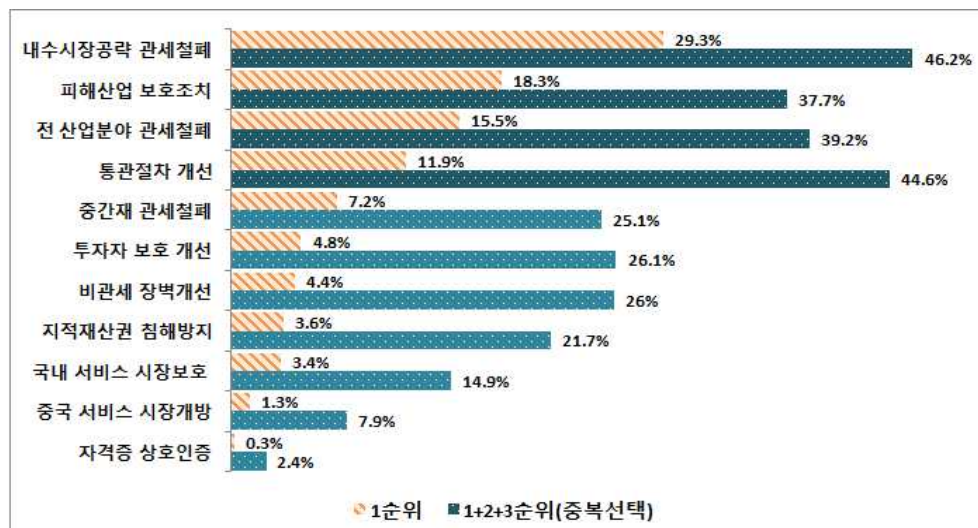
〈FTA 조기 타결 추진 이유〉

• 교역량이 많은 주요 수출입 국가 - 무역/거래량이 많고 활발한 주요 수출입국이다. - 당사와 주거래 국가이다 - 당사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다 • 역내 교역 활성화 -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나라다 - 다양한 나라와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 같다 - 당사 해외 공장이 진출되어 있는 나라이다 - 아시아 경제 활성화에 좋을 것 같다	• 향후 시장 잠재력이 큰 국가 - 거대시장이다/시장성이 큰 나라이다 -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 - 경제인구가 많아 소비수요가 증가한다 - 경제대국으로 커지고 있다 - 잠재력이 많은 신흥경제성장국이다 • 자원 확보에 도움 - 원부자재 수입을 많이 한다 - 자원이 풍부해서
--	--

□ 조기 타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한·중 FTA의 고려사항에 대해 무역업계는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최종재 관세철폐, 통관절차 개선 등을 꼽았고 이와 함께 국내 피해산업 보호조치도 중요하다고 답변

- 우선 고려사항 1순위를 묻는 질문에 업계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최종재 관세철폐(29.3%), 국내 피해산업의 보호조치(18.3%), 전 산업분야의 폭넓고 빠른 관세철폐(15.5%), 통관절차 개선(11.9%), 가공무역 축소에 대비한 중간재 관세철폐(7.2%) 順으로 응답
- 1+2+3 순위를 모두 고려하면 최종재 관세 철폐, 통관절차 개선, 폭넓고 빠른 관세 철폐, 국내 피해산업 보호조치 順으로 나타남

〈한·중 FTA 협상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



주: 한·중 FTA 우선 고려 사항 N=1,000

□ 향후 FTA 추진이 필요한 국가에 대해 우리 기업은 CIS, 중앙아시아, 중동, 서남아시아, 아프리카의 신흥시장 및 자원부국을 꼽았고 FTA가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무역 업계는 우리가 FTA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국가 가운데 CIS, 중앙아시아, 중동,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신흥시장 및 자원부국과 향후 FTA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FTA가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표시
-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의 대만, 홍콩 등을 FTA 추진 대상으로 꼽은 사례도 있었음

〈향후 FTA 추진이 필요한 국가 및 이유〉

• CIS·중앙아시아: -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 • 중동·서남아시아: - 알제리, 이집트, 요르단, 이란, 이라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토고, 나이지리아, 케냐, 앙골라, 카메룬, 에티오피아, 모리타니아 • 아시아: 대만, 홍콩	• 신흥시장/현지진출 도움/자원부국 등 - 중동시장 진출에 유리할 것 같다 - 아프리카 대륙 진출에 좋을 것 같다 -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잘 받아들인다 - 투자가치가 많은 나라이다 -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 같다 -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 - 개발도상국이다 - 잠재력이 많은 나라이다 - 경제인구가 많아 소비수요가 증가한다 -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하다 - 자원이 풍부해서 - 원부자재 수입을 많이 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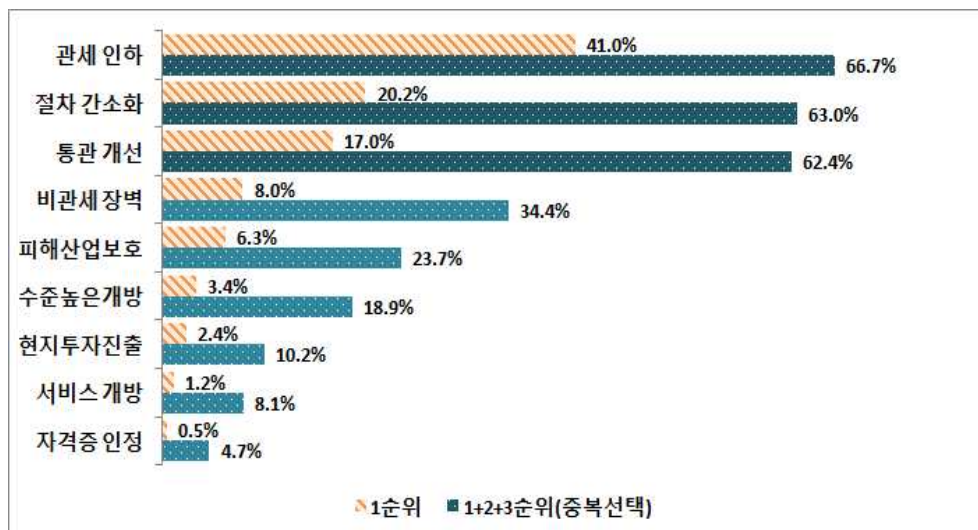
주: 향후 FTA 추진이 필요한 국가 N=1,000

□ 무역업계는 향후 FTA 협상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신속한 관세인하, 절차 간소화, 통관개선, 비관세 장벽 등을 꼽아 무역장벽의 실질적 개선 및 FTA 활용 확대에 큰 관심을 보임

- 업계가 뽑은 향후 FTA 협상 추진시 우선 고려사항은 관세의 신속한 인하·철폐, 원산지 규정 및 절차의 간소화, 통관 절차 개선, 인증·규격 등 비관세 장벽 개선 順으로 나타나 등 수출입 장벽의 실질적 개선과 FTA 활용 확대에 큰 관심을 나타냄

- 이어서 국내 피해산업의 보호 장치 마련, 다양한 분야의 폭넓고 수준 높은 개방, 현지투자 진출여건 개선, 현지 서비스 시장 개방, 자격증 상호 인정 順으로 나타남
- 1순위 질문과 중복선택을 통한 1+2+3 순위 질문에서도 우선순위 변동 없이 동일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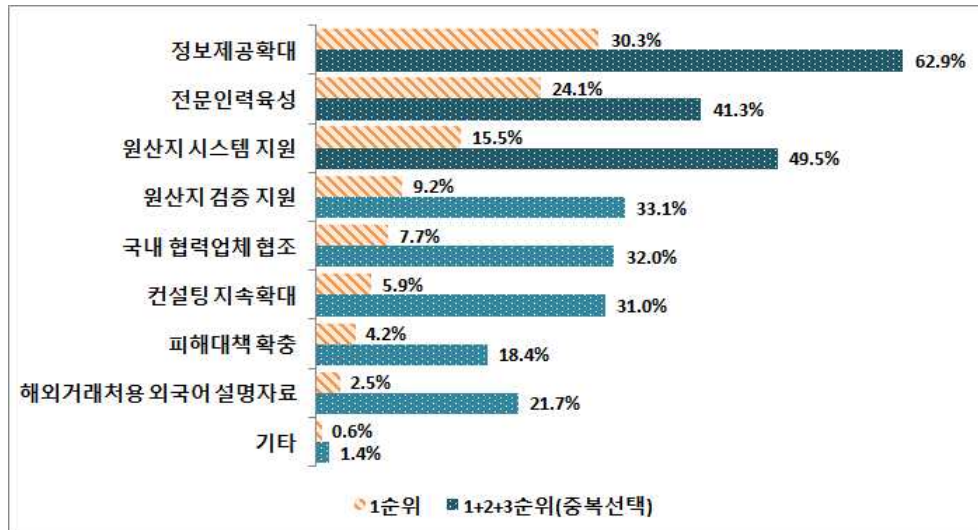
〈향후 FTA 협상시 우선적 고려 요소〉



주: 향후 FTA 우선 고려 사항 N=1,000

- 또한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은 정보제공 확대, 전문인력 육성, 원산지 시스템 지원 확충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남
 -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의 고려사항에 대해 우리 업계는 FTA 관련 정보 제공의 확대, 전문인력 육성, 원산지증명서 관리 시스템 보급 및 지원 확충을 우선순위로 꼽았음
 - 또한 원산지 검증 지원, 부품·소재 등을 납품하는 국내 협력업체의 원산지 소명 및 확인서 관련 협조체계 구축, FTA 컨설팅의 지속 확대,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피해대책 확충, 해외 거래처 제공을 위한 외국어 설명자료 지원 등이 뒤를 이었음

<무역업계의 FTA 활용 확대 위한 정책>



주: 향후 FTA 활용 확대 위한 정책 N=1,000